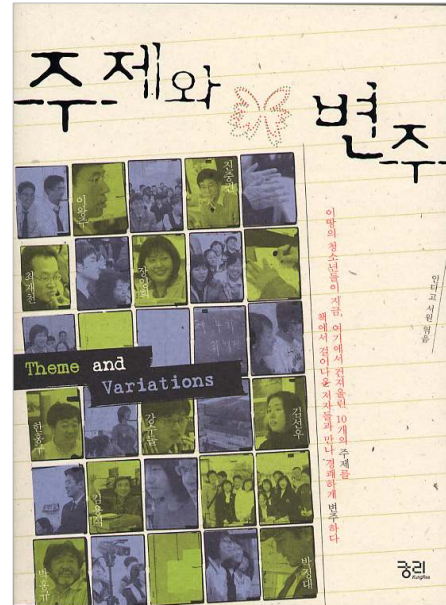


주제와 변주

이땅의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에서
건져올린 10개의 주제를
책에서 걸어 나온 저자들과 만나
경쾌하게 변주하다

인디고 서원 엮음

인문|588쪽|신국판변형|18,000원|
ISBN 89-5820-057-X(03300)
2006년 4월 18일 출간



책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책을 읽은 아이들은 이렇게 진화했다!

책과 책을 종횡무진 넘나들던 아이들, 책과 저자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에는 내신 강화, 수능 등급제 등의 방안과 더불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독서 이력철'을 작성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가 권장 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기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나 즐거움에서가 아닌, 어떤 목적을 위한 독서는 자칫 '의무'가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앞으로 만들어질 권장 도서 목록의 면면들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는 고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염려마저 생겨나고 있다. 가장 좋은 목록이란 독서의 주체인 아이들이 직접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른 것들이 아닐까 싶다.

『주제와 변주』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책을 가까이 하며 지낸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가장 만나고 싶은 저자를 선정하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초대의 편지를 썼다. '생을 살면서 꼭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연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는 한 걸까? 내 일상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가?' 등 청소년들 자신이 당면한

문제상황들을 분석하고 그 의문들을 함께 모여 고민했다.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인간은 각자의 문제상황을 늘 끌어안고 사는 법.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이성이 결정하는가? 감정이 결정하는가?" 등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늘 고민하는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딱딱한 토론이나 지루하고 진부한 세미나를 생각하지 말라. 아이들은 즐기는 마음으로 일종의 놀이를 펼치면서 이를 통해 성장해 나갔다. 이런 토론과 함께 다양한 책 속을 산책하던 아이들은 드디어 그 책을 쓴 저자들을 책 밖으로 초대하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주제와 변주'의 시작이다.

- 이왕주 지금 여기, 당신은 누구입니까?(『소설 속의 철학』을 읽고)
진중권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미학오디세이』 『현대미학강의』)
최재천 생물학자로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한홍구 양심의 잣대는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대한민국史』)
박정대 시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청춘의 격렬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외 시집들)
장영희 진짜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생애 단 한 번』 『문학의 숲을 거닐다』)
김용석 획일화된 시대에 다양성, 다름의 수용은 왜 중요합니까?
(『깊이와 넓이 4막 16장』)
강수돌 개인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나부터 교육혁명』)
박홍규 우리 모두가 이 문을 열고 세상 밖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의적, 정의를 흠치다』 『내 친구 빈센트』 외 다수 평전들)
김선우 해가 나무그늘로 막 기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김선우의 사물들』)

'주제와 변주'가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게 된 데는 무엇보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공이 크다. 인디고 서원에서 초청장을 받아 저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등을 적어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기에 좁은 공간에서 70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도 지루함 없이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주최자가 따로 없다. 모두가 주최자이고 그 자리의 주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여 빛을 내는 것이다. <주제와 변주>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과 '참여 정신'이다. 무대 준비라든가 강의 후 뒷정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자발적으로 의자를 정리하고 책상을 나르고 쓰레기를 줍는다.

만나고 싶었던 저자들에게 아이들은 소박하지만 진실된 물음들을 던진다.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의미들과 함께 아이들의 눈에는 저자들의 좀더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주제와 변주> 행

사가 거듭될수록 저자들의 때로는 권위적이었던 태도,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청소년의 진지한 고민의 산물인 질문을 너무 쉽게 보고는 그 깊이에 대한 배려 없이 답변하는 모습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종종 들렸다. 하지만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주제와 변주'는 생산적인 비판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간직한 책이다.

입시전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읽을 여유가 있는 '교과서 외'의 책은 1,600자 원고지를 채우기 쉬운 논술·구술 프린트나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은 독서와 단절된 삶, 철학이나 교양이 사실상 부정되고 있는 교육풍토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책과 책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었던 저자를 초대해 책에서 못다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꾸준한 독서가 작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

진정한 책읽기를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 미래의 독자들은 자란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은 2004년 8월 28일 문을 열었다. 서가에는 입시용 참고서 대신 '문학, 역사·사회, 철학, 예술, 교육, 생태·환경', 6가지로 분류한 일반 단행본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서가를 가득 메운 3,000종이 넘는 책들은 이곳을 운영하는 허아람 선생이 지난 16년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뽑아낸 '정수(精髓)'들이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동네마다 가득한 학원들 자리에 도서관과 작은 책방들이 생겨나서 학교를 마친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작은 책방으로 찾아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인디고 서원의 청소년들은 한 달에 4권에서 6권 정도의 책을 선정하며 책마다 읽고 토론하는 기간을 다르게 잡는다. 예를 들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1주 후에 만나 처음으로 수업하는 책이고, 『무탄트 메시지』는 4주 후에 읽고 수업하며 『틱낫한에서 춤스키까지』는 6부까지 있는 책이어서 6주 동안 매주 수업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주에 한 권만 읽는 것보다 여러 분야의 책을 아이들 각자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선택하여 읽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각자의 책읽기를 즐기는 동안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이것을 그들은 '네트워크 하기'라 부른다. 또한 수업 방식도 책에 따라 다양하여 연극으로 꾸미기도 하고, 낭송회를 열기도 한다. 물론 인디고 아이들이 함께한 책읽기는 세상의 다양한 책읽기 목록 중 일부일 뿐이고 절대적으로 제일 좋은 목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난 아이들이 제 삶의 '장(場)'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독서를 통해 이 땅에 교육의 본질적 모습이 정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것은 독서 토론-대화라는 작은 교육적 실천을 통해 청소년들의 도덕적 품성(인성)과 예술적 감성, 그리고 비판적 지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일 것이다. 책 자체는 이미 모든 인간의 선생님이며 그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일은 새삼스럽다. 다만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지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부재를 채워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인디고 서원 www.indigoground.net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은 2004년 8월 28일 문을 열었다. 서가에는 입시용 참고서 대신 '문학, 역사·사회, 철학, 예술, 교육, 생태·환경', 6가지로 분류한 일반 단행본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서가를 가득 메운 3,000종이 넘는 책들은 이곳을 운영하는 허아람 선생이 지난 16년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뽑아낸 '정수(精髓)'들이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동네마다 가득한 학원들 자리에 도서관과 작은 책방들이 생겨나서 학교를 마친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작은 책방으로 찾아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